

**참다윗으로서 장차 올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6/20 월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21:4, 6

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떡은 가진 것이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여자들을 멀리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6 그래서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다. 왜냐하면 임재의 떡 외에는 다른 떡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떡은 마침 따듯한 떡으로 바꾸려고 여호와 앞에서 가지고 나온 떡이었다.

마 1:6

6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마 12:1-4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팠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 본 적이 없습니까?”

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다윗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임재의 떡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삼상 2:35-36

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36 그리고 너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은 한 닢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와서 절하며

말하기를 ‘제발 나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 주셔서 딱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눅 19:36-38

36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걸췌기를 길에 깔았다.

37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시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 왔던 모든 능력의 일들을 두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38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하여라! 하늘에서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팠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 본 적이 없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다윗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임재의 떡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마 12:3-4)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참다윗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옛적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척을 받던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임재의 떡을 먹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레위기의 율법을 범하는 것 같았다. 이제 참다윗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배척받게 되었고,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죄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도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안되었다. 다윗왕은 참다윗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참다윗이신 그리스도께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제자들이 있었다. 다윗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참다윗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도 배척을 받았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고팠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도 배가 고팠다. ... 이것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예표였음을 암시한다.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47 장, 567-56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2 장 3 절과 4 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에서 왕의 직분으로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옛적에 다윗의 출현은 제사장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그 시대를 바꾸었으며, 왕의 시대에는 왕들이 제사장들 위에 있었다. 제사장의 시대에는 백성의 지도자가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했다(민 27:21-22). 그러나 왕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왕에게 복종해야 했다(삼상 2:35-36). 따라서 다윗왕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번에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다시 한번 시대가 바뀌었다.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은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옛 시대의 율법에 속한 문제였다. 그러나 은혜 시대에 최종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47 장, 568 쪽)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듯하다. “여러분은 나나 나의 제자들을 유죄판결 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내가 여러분에게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참왕이며 참다윗입니다. 나는 또한 은혜의 시대를 이끌어 온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든지 그것이 최종 결정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다. 주님의 변호는 얼마나 강력했는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32 장, 407 쪽)

다윗은 이새의 여덟째 아들이었으며, 하나님께 선택되어 기름부음을 받았다(삼상 16:10-13). 여덟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의미한다. 다윗이

여덟째 아들로써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부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삼상 13:14),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온 사람이었다.

다윗은 조상들 세대의 마지막 대였고, 왕들 세대의 제 1 대였다. 그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시대를 시작했다. 그는 두 시대의 경계표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왔고 또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마 1:6 각주 1)

마태복음의 이 계보에서 오직 다윗만 ‘왕’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를 통해 왕의 직분이 있는 왕국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마 1:6 각주 2)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32 장;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49 장;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4 장

**6/21 화요일**

아침의 누림

시 22:1  
1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저를 구원하지 않으시며 저의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히 5:7  
7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께 크게 부르짖으시며 눈물로 간구와 간청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경건함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

시 22:9-11  
9 그러나 주님은 저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제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10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주님께 맡겨졌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1 환난이 다가오나 도와줄 이 없으니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시 109:3-5  
3 그들은 제게 증오의 말을 퍼붓고 이유 없이 저를 공격합니다.  
4 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이 저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5 그들은 제게 선을 악으로 갚고 제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습니다.

마 27:39-44  
39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여  
40 “성전을 헐고 삼 일 만에 건축하겠다던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라고 하였다.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42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당장 구출하시겠지.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였으니까.”라고 하자,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눅 23:33-35  
33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범죄자들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34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그분의 겉옷들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35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관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이라면,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고 하지!”

---

시편 22 편 1 절 상반절은 다윗이 고난받는 중에 한 말이었다. 구속하는 죽음의 고난을 겪으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되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마 27:46).

시편 22 편 2 절부터 5 절까지는 다윗의 신음하는 기도의 연속인데, 이 절들에서 신음은 찬양으로 바뀌었다.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말씀하신다. 6 절을 시작으로, 화자가 다른 인물 즉 그리스도로 바뀐다. 이것이 시편이 기록된 방식이다. 다윗이 말하는 동안,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개입 하셔서 다윗의 말함 안에서 말씀하셨다.

시편 22 편에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난받는 다윗을 본다(1 상, 6-21 절). ... 다윗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솔로몬은 왕권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시편 라이프 스타디, 10 장, 153-1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놀리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였다 (시 22:6-8, 히 13:13 상, 사 53:3, 눅 23:11, 막 15:29-32, 마 27:39-44). ... 이러한 각 단어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을 묘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시편 22 편 9 절부터 11 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구출되시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여기서 구출되시는 것이 부활이다. 그분은 분명히 죽고자 하셨고 죽음에서 구출되실 것, 즉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셨다.

시편 109 편은 다윗이 그의 고난에 관하여 드린 기도이다. 여기에서 또다시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시편 109 편 8 절은 “그의 날들은 얼마 되지 않게 하시고 / 그의 직분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절은 사도행전 1 장 20 절에서 인용되었고, 그리스도를 판 유다에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8 절이 인용된 것은 시편 109 편이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이라는 것과 이 시편에 묘사된 고난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체 안에서 받으신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편 109 편에 나오는 기도는 다음 시편인 시편 110 편에서 응답된다. 시편 110 편은 시편 109 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시편 110 편은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겨져야 한다. 히브리서 5 장 7 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께 크게 부르짖으 시며 눈물로 간구와 간청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경건함 때문에 들어주셨 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부활뿐 아니라 승천을 통해서도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비록 시편 110 편이 가장 짧은 시편들 가운데 하나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가 있다. ...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 ‘...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1 절) 승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은(히 1:3 하) 신약에 스무 번 이상 직접 인용되었고, 간접적으로도 스무 번가량 인용되었다.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는 하나님의 오른편이다. ...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다만 그분께서 한 장소에 계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인격이신 아버지 안에 계시는 문제이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 자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앉으셨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주님과 그리스도와 온 우주의 영도자와 구주가 되셨음을 본다(행 2:36, 5:31, 10:36).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된다.

시편 110 편 1 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그분의 발받침대로 두실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계시지만, 그분께는 여전히 발 받침대가 필요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셔서 그분의 발 받침대로 두시려고 힘쓰고 계신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다.(시편 라이프 스타디, 10 장, 154-155 쪽, 38 장, 492-49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시편 라이프 스타디, 10, 38 장

6/22 수요일

아침의 누림

시 110:1-3, 7

- 1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 2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 3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 7 그분은 길가 시내에서 물을 마시시므로 그분의 머리를 드시리라.

---

삼하 23:1-5

- 1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선포이며 높은 곳에 세워진 사람의 선포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이며 이스라엘에서 찬송시를 아름답게 부르는 이이다.

- 2 여호와와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 위에 있었다.
- 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이는
- 4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해 돋을 때의 아침 햇빛 같고 비 갠 뒤의 눈부신 햇살로 땅에 연한 풀을 돋우는 밝은 빛 같다.’
- 5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않은가? 그분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어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갈망을 참으로 그분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눅 1:68-70, 76-79

-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으며,
-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주님의 종 다윗의 가문에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 70 주님께서 옛적부터 주님의 거룩한 신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 76 아기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신언자라 불릴 것이고,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 77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음으로 얻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인데,
-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

시편 110 편 2 절은 하늘에 속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실 것임을 가리킨다. ... 오늘날 민족들은 그분의 원수들이다.

시편 110 편 3 절은 어떤 종류의 싸움이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오늘날은

여전히 싸우는 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직 발 받침대를 얻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지속되는 싸움에 참여한다. 우리는 교회의 잘못된 터는 어느 것이라도 반대하고 무효화하며, ...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대와 싸움에 직면하게 된다.

비록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을지라도 수 세기에 걸쳐 헌신의 광채 곧 헌신의 아름다움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바친 이들의 노선이 이어져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드렸으며, 이러한 드림에는 헌신의 광채가 있었다.(시편 라이프 스타디, 38 장, 494-495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시 110:3 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헌신의 광채를 보고 싶어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을 얻기를 갈망하심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예물로서 그분께 자원하여 바치는 사람들의 광채를 보기를 즐거워하시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 여전히 그분을 적셔드릴 수 있는 얼마만큼의 이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리스도도 적셔짐이 필요하시다. 그분께 우리는 그분을 적셔드리는 이슬이 될 필요가 있다.

여기의 시적인 표현에 따르면, 이 이슬은 ‘새벽의 태’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 태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적셔드릴 수 있는 이슬로 잉태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아침 부흥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시는 이슬이 되기 위해 새벽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놓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적시기는커녕 그분은 메마르게 되실 것이고, 우리 또한 메마르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특히 청년들이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온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슬로 적셔지는 것이 필요한

식물에 비유하신 것을 보기 바란다. 우리가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적셔 드리기 위해 새벽의 태에 잉태되어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반응하기를 바란다.

“그분은 길가 시내에서 물을 마시시므로 / 그분의 머리를 드시리라.”(시 110:7) 그리스도는 싸우시는 동안에 목이 마르실 것이다. 마실 물이 조금 필요하시므로 그분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실 것이다. 이 시냇물은 이기는 이들이다. 헌신의 광채 안에서 자신을 바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적셔 드리는 새벽이슬이며, 이기는 이들은 그분의 갈증을 풀어 드리는 시냇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끝까지 싸우시는 동안에 마실 물이 필요하실 것이고, 이 물은 이기는 이들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시내에서 물을 마시실 때, ‘그분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승리를 거두실 것임을 뜻한다. 머리를 아래로 떨구는 것은 패배의 표시이지만, 머리를 드는 것은 승리, 위풍당당함의 표시이다. 머리를 드는 사람들은 모든 원수를 정복한 이들이다. (시편 라이프 스타디, 38 장, 495-498 쪽)

사무엘기하 23 장 1 절부터 7 절까지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본다. ... 3 절 하반절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의롭게 다스렸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해 돋을 때의 아침 햇빛 같았고, 비 갠 뒤의 눈부신 햇살로 땅에 연한 풀을 돋우는 밝은 빛 같았다(삼하 23:4).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사람들을 의롭게 다스리실 때, 해 돋을 때의 아침 햇빛 같으시며, 비 갠 뒤의 눈부신 햇살로 땅에 연한 풀을 돋우는 밝은 빛 같으시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8 장, 281-28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8 장; 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41 장

## 6/23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겔 34:23-24

23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24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이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 렘 30:9

9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

#### 사 32:1-2

1 참으로 한 왕께서 의에 따라 통치하시고 통치자들이 정의에 따라 다스리리라.

2 한 사람이 바람 피하는 곳과 폭풍우 가리는 곳 같고 메마른 곳에 흐르는 시냇물 같으며 황무지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 눅 1:31-33

31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32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33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무궁할 것입니다.”

#### 요 10:11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 호 3:5

5 그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며, 마지막 날들에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와 그분의 선하심을 향하여 나아올 것이다.

---

주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오실 때, 그분은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오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신 결과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왕권과 보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겔 34:24 각주 1)

다윗으로 예표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싸우시는 왕으로서 그분의 모든 원수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고, 땅을 얻으셨으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셨다.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24 장, 289 쪽)

이스라엘과 관련된 면에서 에스겔서 37 장 24 절에 나오는 예언은 복원의 시대인 천년왕국과 영원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것이다.(겔 37:24 각주 1)

###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34 장 23 절과 24 절에 나오는 '나의 종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참다윗(마 12:3), 하나님의 양 떼의 참목자(시 23 편, 요 10:11, 히 13:20),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시다(겔 34:24, 사 9:7, 호 3:5, 미 5:2, 눅 1:32-33).(겔 34:23 각주 1)

예레미야서 30 장 9 절에 나오는 '그들의 왕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참다윗 이시며(참조 삼하 7:16 각주 1), 복원의 때 즉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사 32:1, 계 20:4, 6). 다윗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렘 30:9 각주 1)

그리스도는 왕국 안에서도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다. 마태복음 13 장 41 절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 후에,

그분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때 그분은 왕국 안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했다(사 14:13-14). 그를 처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창 1:26).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를 따른 후에(창 3:1-6), 하나님은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고(요일 3:8) 마귀를 멸망시키시기 위하여(히 2:14)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되찾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다(계 11:15, 12:10).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오실 다가오는 왕국에서(단 7:13-14, 눅 19:12-15), 그분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표시로서뿐 아니라, 사탄의 패배와 수치의 표시로서도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땅을 차지하신 후에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땅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다(계 20:4, 6, 2:26-27). 장차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장차 올 천 년 동안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머리와 중심이실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32 장 1 절, 예레미야서 23 장 5 절, 스가랴서 14 장 9 절과 17 절의 성취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땅과 그 모든 백성을 그분의 왕국의 영역과 구성원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을 구속하셨고(골 1:20), 모든 것을 팔아 왕국을 사셨으며(마 13:44), 땅과 그 모든 백성을 사탄의 강탈에서 구출하셨으므로(계 20:2-3), 그분은 회복된 땅과 회복된 민족들의 왕이 되실 완전한 권리가 있으실 것이다. 곧 다가올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고(마 6:13), 온 땅과 그 백성들은 의와 화평과 기쁨 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주어질 충만한 축복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사 32:1, 16-18, 35:1-2, 5-7).(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12 장, 158-15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12 장

6/24 금요일

### 아침의 누림

삼하 7:12-13, 16

12 네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16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토록 굳건해지며, 네 보좌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

---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 9:6-7

6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7 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분의 왕국 전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끝없이 확장되고 그분의 화평도 끝이 없으리니 이제부터 영원히 정의와 의로 왕국을 굳게 세우시며 불드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고전 12:12

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자와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며, 다윗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보좌를 가리킨다.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다윗과 그리스도는 한 보좌를 소유한다(사 9:7, 16:5, 눅 1:32, 행 2:29-31). 신언자들은 다윗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 그 둘을 하나로 여겼다(렘 30:9, 겔 34:23-24, 37:24-25, 호 3:5, 암 9:11). 그리스도는 참다윗이시다(마 12:3-4...). 따라서 사무엘기 7 장 12 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이신 반응에서 그리스도를 다윗과 다윗의 씨와 하나로 여기셨다(삼하 7:1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건축 하시어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임을 암시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께서 우리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그분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축의 일을 통하여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되시고, 새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되신다(고전 12:12, 골 3:10-11). 교회, 몸,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삼하 7:16 각주 1)

##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집과 왕국과 그의 보좌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다(삼하 7:16).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국과 보좌를 물려받으실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다윗의 집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과 보좌만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단 7:14).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해 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다윗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임을 확증해 주었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무궁할 것입니다.”(눅 1:32-33)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집과 왕국이 영원토록 굳건해지고 그의 보좌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보좌를 잇고(왕상 1:39)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왕상 6:1). 다윗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전 건축의 모형을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 주었다(대상 28:11-19). 솔로몬은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은 후, 그의 아버지 다윗이 본 모형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합당하고 견고한 거처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실 왕국을 얻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성전을 얻으셨다.(진리 공과, 2 단계, 1 권, 7 과, 122-123 쪽)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서 영원 과거, 구약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왕국, 신약에서 현시대의 교회, 오는 시대의 천년왕국, 영원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 천국은 하늘들의 다스림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로서 현시대의 교회와 오는 시대의 천년왕국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주님(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은 모두 오는 시대의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 아버지의 왕국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이고, 사람의 아들의 왕국은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이다.(진리 공과, 1 단계, 2 권, 23 과, 2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1 단계, 2 권, 23-24 과;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3 장; 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41 장

## 6/25 토요일

## 아침의 누림

## 암 9:11-12

11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무너진 곳에 벽을 쌓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옛날처럼 건축하리라.

12 그리하여 그들이 에돔의 남은 이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을 행하는 여호와와 선포이다.

----

## 계 12:10-12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12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이들과,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닥친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심한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 시 2:1-2, 6-9

1 어찌하여 민족들이 소동하며 어찌하여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땅의 왕들이 나서고 통치자들이 서로 모의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을 대적하며

6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시리라.

7 내가 여호와와 칙령을 선포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8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유업으로 주고 땅의 끝까지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

9 너는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깨뜨리리라.”

---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집의 복원은 아모스서 9 장 11 절부터 15 절까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사도행전 15 장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야고보는 아모스서 9 장 11 절과 12 절의 이 부분을 인용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국이자 다윗의 왕가이다. 고대에는 왕가와 왕국을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이다.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왕가였다. 이 왕국, 이 왕가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 가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하며, 왕을 끌고 갔을 때 무너졌다. 그것이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왕가의 몰락이었다. 그렇지만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복원하시겠다고 약속하러 오셨다. 그날에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가문은 복원될 것이고, 모든 민족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호세아-말라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142-143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아모스서 9 장의 이 예언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참다윗이 되실 것임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실 때 참다윗이 되시어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왕가를 복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일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모든 민족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사도행전 15 장에서 야고보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복원의 때에 모든 이방인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속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복원을 위하여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복원하러 오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때에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모스의 예언 가운데 매우 위대한 항목이다.(호세아-말라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143 쪽)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은 복원된 이스라엘 왕국, 곧 다윗의 왕국일 것이다(행 1:6, 막 11:10). 구약에서 주님은 유대 백성에게, 기름부음 받은 분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으시고, 유대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를 복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창 49:10, 삼하 7:13, 16, 시 2:8-9, 72:1-20, 89:4, 110:2-3, 사 9:6-7, 11:1-5, 10, 렘 23:5-6, 30:9, 33:14-17, 겔 21:27, 34:23-24, 37:24-25, 단 2:35, 7:14, 호 3:5, 암 9:11-12, 슥 3:8, 6:12-13, 9:9-10). 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그분의 왕국을 복원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눅 2:25, 3:15, 7:19, 요 1:41, 7:27, 41). 그러나 주님께서 두 번째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복원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마 23:39). 메시아께서 복원하실 왕국, 곧 장래 복원될 메시아의 왕국 혹은 이스라엘 왕국은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 곧 주님께서 재건하실 다윗의 장막일 것이다(행 15:16). 주님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야곱의 집, 곧 유대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며(눅 1:32-33), 천년왕국 동안 땅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다(시 2:8, 72:8, 단 7:14, 2:35).

돌이킨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에서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회복되고 복원되고 보존된 민족들은 백성이 될 것이다. 창조물은 복원될 것이고,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땅은 평화로 가득할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왕국일 것인가! (진리 공과, 4 단계, 2 권, 317-3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호세아-말라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아모스(3); 진리 공과, 4 단계, 2 권, 39 과

6/26 주일

아침의 누림

행 2:22-25, 29-36

22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들과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을 베푸시어 여러분에게 그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23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넘겨지신 이분을 여러분은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24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25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9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30 다윗은 신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1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35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악보 / 음악 (한 756 / 영 960)

<http://khymnal.org>

2022. 6. 20 ~ 2022. 6. 23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9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4, 38, 23 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10, 38 장

호세아-말라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아모스(3);

## 756. 나의 왕 속히 오시리

1 나의 왕 속-히 오시리 하늘-에 찬만하리  
온 우주 구속 돼 소생할 구원을 이루시리  
구름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발-소리  
그 영광의- 몸 하늘에 은밀히 나타내리.

2 오늘 주 임-재 앙망해 게으-름 떨-치고  
주 다시 오-심 기다려 들림받기- 원해  
주 지금 오-셔 주께로 날 이-끌어-가길  
간절히 사-모하는 맘 주님만 향-하네.

3 내 눈은 주-만 보면서 맘은- 하늘에 있네  
내 입은 오-직 주와의 만남을 말-하리  
나 위해 주-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  
주 약속 영-영 견고해 모두 이뤄-지리.

4 내 구주 거-룩한 말씀 의심-할 것- 없네  
거룩한 주- 말씀으로 스스로 격려하리  
주 영광 속-히 나타나 저 원-수 타-도해  
주 약속 속-히 이루어 우리를 이-끌리.

5 구주 예수- 내 하나님 내 피-난처-시니  
주 의지하-는 모든 이 주께서 보-호해  
목자와 양-들 하나요 머리-와 몸 하나니  
누구도 우-릴 못 뺏네 주님의 손-에서.

6 온 세상 사-람 눈과 손 날 막-을 수- 없네  
길 위의 가-시 다만 날 전진케 도-울 뿐  
내 맘과 영-아 일어나 이 세-상 보-내라  
생명의 주-님 오소서 하늘로 올리소서.

7 치료하는- 해와 소망 그 빛-을 사-모해  
공의의 주- 영광 왕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 보좌-에 오르사 그 열-굴 나-타내  
주님의 천-국 세우고 은혜를 주-소서.

8 진리가 승-리 왕이요 자유-가 왕-후나  
거짓이 퍼-져 이 세상 머리가 되-었네  
진리여 하-늘빛 갖고 신속-히 임-하여  
주 품에 많-은 아들들 들어가게 하소서.